

한국 · 알제리 선박안전 기술세미나 개최

협회는 6월 13일 알제리 교통부와 공동주관으로 알제리 수도 알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해양교육원(IMS)에서 선박안전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선박 기술력 전파 및 대외 협력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으며 협회 전략경영실장, 사업개발팀장 및 연효흡검사원과 알제리 교통부 해사국장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 및 프랑스 해사국 공무원 등 총 75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 검사협회는 한국의 선박검사시스템의 시연 등을 통하여 한국의 선박기술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였고 알제리 정부와 기술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협회와 알제리 교통부 관계자들 -

협회는 지난 6월 13일 알제리 교통부와 공동으로 선박안전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협회와 알제리 교통부와 세미나 공동개최 -

기술교류 다변화를 위한 중국출장



- 중국 농업부 어업선박검험국을 방문하여어선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회는 지난 6월 20일 해외 기술교류 다변화를 통한 기술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국 농업부 어업선박검험국을 이 자리에는 중국측 검험국 국장(周彤, Zhou Tong)을 비롯한 어선검사전문가 6명이 참석하였고, 우리측에서는 김성규 이사장 및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김삼열 서기관을 비롯해 협회 직원 4명이 참석하였다. 중국측은 우리나라의 어선검사제도 및 어선해양사고 방지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인 기술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에 어선검사제도의 개선, 어선의 기술교류, 정기적인 심포지움 개최, 상호 기술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를 거쳐 기술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사협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국과의 기술교류협력 및 우호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양국의 어선기술 발전 및 어선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립대학과 기술교류협력 협정체결

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 6월 9일 강원도립대학(학장 진장철)과 기술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은 강원도립대학이 최근 레이저선박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보급의 강화를 위해 검사협회에 협정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학술적 자문 및 교육지원 등 활발한 기술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립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체결 -

신한은행과 MOU체결

협회는 지난 6월 28일 국내조선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선박기술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선박, 해상구조물, 조선소의 건조기술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상시 정보교류를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검사협회와 신한은행은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선박관련 기술을 금융권에 제공하여 조선소에는 금융권의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금융권에는 조선소 투자시 위험요소를 줄여 줄 계획이다.



- 신한은행과 선박기술 업무제휴 협약체결 -

“FRP선박의 화재안전성 및 방화구조연구” 관련 일본방문

협회 이희준 기술연구팀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FRP선박의 화재안전성 및 방화구조에 대한 규정 및 실태조사를 위해 일본소형선박검사기술(JCI)과 수산공학연구소(NRIFE)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의 FRP선박 난연수지 및 방화조치 실태와 제반규정을 조사하였고 어선의 복원성 기준, 한중일 세미나, JCI 연수자 파견 등 기술교류를 논의하였다.



- 우리협회와 수산공학연구소 직원 -